



농촌진흥청, 몽골 축산·벼 기술 협력 강화 행보 활발

- 대통령실·농업부 고위급 잇달아 면담, 농업기술협력 확대 방안 논의
- 발효사료연구센터·생산공장 등 케이(K)-축산기술 보급 현장 점검
- 시범마을 협동조합·수입업체 격려, 케이(K)-농자재 적극 도입 예정

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대통령실·농업부 고위급 인사와 잇달아 면담하고, 케이(K)-축산·벼 기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* KOPIA(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):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.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

이 청장은 8일 몽골 정부 청사에서 바트센겔 엔흐암갈란 몽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과 차강후 이데르바트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코피아(KOPIA) 몽골 사업 출범 이후 꾸준히 이어온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.

이 자리에서 몽골 대통령이 추진 중인 '식량혁명운동'과 연계한 축산 및 벼 기술 개발·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논의하며, 몽골 대통령실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(LOI)를 체결했다.

아울러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 몽골·중앙아시아 가축 개량 기술 개발·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.

이 청장은 10일에는 몽골생명과학대학교 내 발효사료연구센터와 생산공장을 시찰하고, 현지 맞춤형 미생물을 활용한 완전배합발효사료(TMF) 생산 체계를 살폈다.

이어 몽골생명과학대학교 바아산수흐 바다르치 총장과 만나 작물 품종 개발, 축산 및 벼 재배 기술 보급 등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,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 몽골 축산·벼 재배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아산수흐 바다르치 총장은 몽골 농업 전문가 양성 사업 추진 등 후속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.

방문 마지막 날(11일)에는 코피아(KOPIA) 몽골센터에서 축산 시범마을 협동조합장, 동물약품·농자재 수입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코피아 시범마을에 동물약품 등 농자재 도입을 확대해 한국산 제품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.

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발효사료연구센터 기능 확대, 인공수정 기술 보급, 벼 재배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코피아 몽골 사업 협력 성과를 몽골 전역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. 코피아 몽골 사업은 지난해 12월 몽골 대통령에 그 성과가 보고되는 등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.

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“이번 방문을 통해 몽골 고위급 인사들과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, 향후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.”라며, “케이(K)-농업기술이 몽골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려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	책임자	과 장	이경희 (063-238-1160)
		담당자	연구사	유지현 (063-238-1165)
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				